

# 아이돌봄인력 국가자격 도입에 관한 주요 쟁점1)

최윤경 선임연구위원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의 정책에 대한 연속성을 확보하고 세부정책의 실행방안을 마련하였다.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의 국정과제(46) 하에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와 아이돌보미/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제도의 도입,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등록제 도입을 제시하였다.

우리사회 양질의 돌봄에 대한 비등하는 수요 대비 돌봄생태계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아이돌봄인력에 대한 국가수준 자격의 도입이 갖는 의의와 쟁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향후 돌봄인력의 국가자격 도입의 추진과 실행에 앞서 검토가 필요한 논점과 주요 방향성에 대해 ECEC(교육·보육·돌봄)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돌봄의 직무에 기초한 접근 및 역량 중심의 평가, 국가시험 및 무시험검정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논의하였다.

## 1. 서론: 국가자격 도입 논의의 배경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재가 돌봄서비스로, 기관 서비스 위주의 돌봄 지원 체계에서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2007년 시범사업 이후 지원 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왔으며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돌보미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의 강화 등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아이돌보미는 2020년 기준 24,469명, 2021년 25,917명, 서비스 이용가구는 2020년 59,663가구, 2021년 71,789로<sup>2)</sup>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했던 이용 수요가 위드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이전 수준의 이용 수요를 회복하고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2020년 기준 시간제 88.9%, 영아종일제 5.3%,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3.7%, 종합형 2.1%로<sup>3)</sup>

1) 이 원고는 「육아전문관리사 국가자격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최윤경·김근진·최윤경, 2021) 여성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 내용에 기초함.

2)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2021년 사업현황 자료.

3)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12월).

시간제 위주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다수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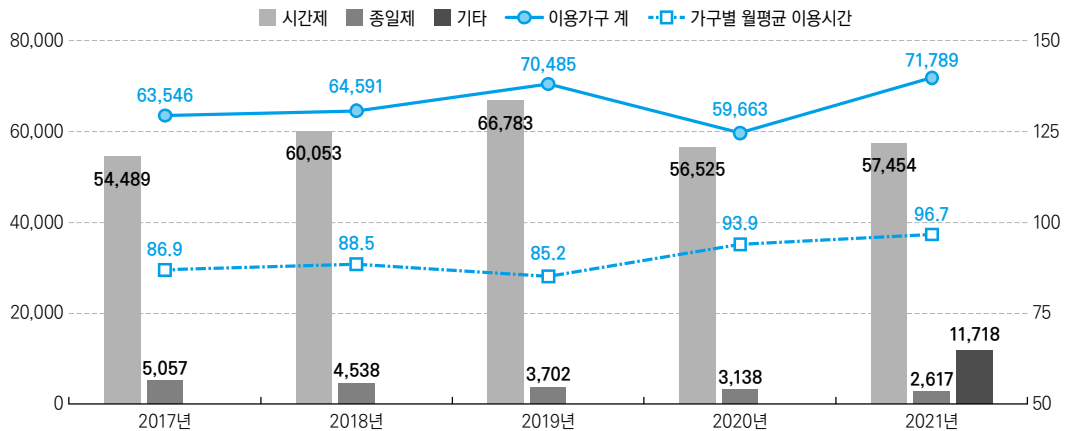
그러나 이용자의 만족도와 비용지원체계,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내재되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수급의 미스매칭과 안정적 공급 규모, 비등하는 일자리의 질 및 돌봄서비스 수요에의 대응 등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이 갖는 과제와 제한점 또한 누적되어 있다. 최근 아이돌봄서비스 질 관리 강화의 필요성과 함께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에 기반한 양질의 일자리 및 노동권 보장의 요구가 주요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수요자-근로자 간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원활한 서비스 공급을 위한 노동권 제고와 인력의 안정적 기반이 중요한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통해 공공·민간 가정돌봄 인력의 근무여건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간육아도우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신원확인증명서 발급, 돌봄인

(2022. 7. 25)에서 아이돌보미(민간 포함) 국가자격제도의 도입과 정부지원의 확대, 아이돌보미를 17만명까지 늘리고 기존 공공 중심의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맞벌이가구의 양육 부담을 낮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제 아이돌봄서비스의 질 관리와 양질의 일자리, 비등하는 돌봄서비스에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내재된 미스매칭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의 의의와 실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자격제도의 도입은 아이돌보미의 전문성과 역량 증진을 통해 우수한 아이돌보미의 진입과 근속 등 양성의 확대를 꾀하고, 자녀양육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 및 충족하기 위한 방향성을 가진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 이용자 간 매칭의 원활한 선순

[그림 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사업현황<sup>2)</sup>  
 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를 제시한 바 있다. 2022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환이 이루어지는 돌봄생태계의 조성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동 돌봄에 관한 유관분야 국가자격증의 경우(예: 보육교사 등) 이미 아이돌보미 활동의 일정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과의 아이돌보미 연계, 지역 중심의 교육-돌봄 간 통합적 접근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 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협/재난 상황에서 긴급돌봄으로서의 확대된 역할, 영아와 질병감염아동에 대한 돌봄 등 전문화 된 직무, 양질의 일자리로서의 가능성도 국가자격 도입을 검토하는 배경이 된다.

## 2. 국가자격 도입 시 고려사항

현행 아이돌보미 교육훈련과 자격관리를 고려할 때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제도의 도입은 다음의 2가지 흐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가. 국가자격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자격취득 체계

자격(증)은 해당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입직과 근속 및 경력개발의 단계별로 공식적인 절차와 요건(교육훈련 연한과 과정, 자격검정)을 통해 해당 직무에 요구되는 인성적·전문적 자질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국가자격은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 1)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자격체계

국가수준의 자격체계 및 교육훈련 과정과 경력

개발, 임금체계에 필요한 아이돌보미 직무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sup>4)</sup>이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 한 것으로, 2013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총괄하고 산업계 주도로 본격적으로 개발하여 24대 분야 1,039개의 NCS를 개발 및 고시하였다(2021.5.27)<sup>5)</sup>. 아이돌보미는 사회복지·종교(07)>보육(01)>아이돌봄(03)의 세분류로 제시되어 있다.

아이돌봄 직무에 요구되는 NCS 능력단위는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아이돌봄 기본업무관리, 건강안전돌봄, 정서돌봄, 신체돌봄, 아이생활지원의 6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능력단위 세부 요소는 총 22개로 <표 1>과 같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국가자격의 도입은 아이돌보미가 담당하는 업무와 역할이 무엇인지 그 직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NCS 기반 양성교육과정의 구성과 자격의 검정 및 승급 등 자격체계와 연동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유형별로 시간제돌봄서비스 이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영아종일제, 질병감염, 종합형 등으로 나타나는 아이돌봄의 서비스 유형을 고려할 때, 시간제서비스 중심의 아이돌보미 직무의 수행이 국가자격의 도입에 합당한 기준으로 적용되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그 밖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아종일제 및 질병감염/환아 아동에 대한 돌봄직무의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영아종일제와 질병감염서비스에 대한 직무분석은 아이돌보미에게 전문적으로 요구되는 역할과 역량, 즉 직무의 파악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

4)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 한 것으로, 교육훈련과 자격에 NCS를 활용하여 현장중심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https://www.ncs.go.kr/th01/TH-102-001-01.scd0>, 2021. 8. 2 인출).

5) 고용노동부(2021). 2021년 직업능력개발 사업현황

〈표 1〉 아이돌봄 직무 능력단위

능력단위/학습모듈	능력단위 정의	수준	능력단위 요소
01 아이돌봄 서비스관리	아이돌봄서비스관리란 아이돌봄서비스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를 분석하고 서비스관리를 계획·설계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서비스의 점검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능력임	5	정보분석하기 관리설계하기 사후관리하기 교육지원하기
02 아이돌봄 기본업무관리	아이돌봄기본업무관리란 서비스계약 전 고객과의 면접을 통해 업무계약서를 작성하고 아이의 일정에 맞춰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능력임	2	면접하기 업무계약하기
03 건강안전돌봄	건강안전돌봄이란 아이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관리하고 아이의 건강을 돌보며, 사고와 학대행동의 예방을 수행하는 능력임	3	물리적환경 관리하기 사고예방하기 건강관리하기 학대예방하기
04 정서돌봄	정서돌봄이란 아이와 언어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신체적 접촉을 통해 교감을 나눌 수 있으며, 상황별로 일어날 수 있는 아이의 정서적 반응에 대처하고 관리하는 능력임	3	언어소통하기 신체적교감하기 상황별 정서돌보기
05 신체돌봄	신체돌봄이란 일반적 발달 단계와 개인차를 고려하여 청결하고 안전하게 배변관리와 목욕시키기를 수행하고, 아이의 성장발달 단계와 목적에 따라 아이 달래기와 영양관리를 실시하며, 아이가 즐겁게 놀이활동을 하도록 돕는 능력임	2	배변관리하기 목욕시키기 아이달래기 영양관리하기 놀이활동하기
06 아이생활지원	아이생활지원이란 기본생활습관을 바르게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용품의 관리와 생활공간 청소를 수행하며 상황에 따라 아이의 일정을 관리하는 능력임	2	기본생활습관지도하기 아이용품관리하기 아이생활공간청소하기 일정관리지원하기

자료: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https://www.ncs.go.kr/unity/th03/ncsSearchMain.do> 2022. 8. 2 인출

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가사업무를 포함하는 종합형의 경우 이를 국가자격제도 운영 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상 가사근로자의 업무에 광의의 아동 돌봄이 포함됨에 따라<sup>6)</sup>, 이에 대한 국가자격 도입을 위한 직무로서의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 2) 시험검정 vs. 과정이수 직무능력 평가 체계

‘NCS 기반 자격제도’는 역량중심의 직무능력 평가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산업현장의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에는 많은 응시자에게 단기간 내에 자격증을 공급하기 위한 시험제도로서의 특성을 갖는 검정형 자격시험제도보다 NCS 기반 과정이수형으로서 자격시험으로서 성취기준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달성하

6) 가사근로자법 제2조(정의).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학습결과(learning outcome)에 기반한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이다<sup>7)</sup>. 즉 근로자의 다양한 학습결과와 경력 등을 평가 인정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역량 기반의 과정평가’로 발전과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직무능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을 기반으로 직무능력평가체계를 갖추고 종사자들이 수용하고 신뢰하는 기준을 제시 및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인적자원관리 전반(채용-배치-평가-보상승진-교육훈련 등)에 걸쳐 개인의 직무능력과 적합성이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작동하는 능력중심의 관리체계를 의미한다. 이는 곧 학습결과(learning outcome)에 기초한 NCS 기반 자격제도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의 도입은 NCS에 근거한 양성과정(시험)검정 또는 (무시험) 과정이수형 평가가 자격관리 체계와 연계되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만, 아이돌보미는 국가기술자격보다 전문자격에 해당하므로, 엄밀한 의미의 과정평가형이 아닌 양성과정내 일정수준의 역량 습득을 가능하는 과정으로서의 평가 실시를 의미한다 하겠다.

## 나. 국가자격 도입의 쟁점 및 주요 요건

‘국가자격’은 첫째, 자격증 소지자의 역량에 대한 고용주/이용자 등의 신뢰도(credibility), 자격증 소지자가 보유한 역량의 최신성(currency), 자격증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이 되는 노동이동의 가능성(transferability), 그리고 국가자격이 학위, 이수증 등 다른 자격과 비교

가능한 수준인지(comparability), 이를 체계화할 수 있는 자격체계(예: KQS, NQS) 도입이 가능한지 등 해당직무의 주요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sup>8)</sup>.

해당 직무의 현황 전반을 나타내는 기초 직업 지표는 소득, 근로여건, 고용안정, 직업가치, 직무특성, 입직요건의 6개 영역별로 소득(소득수준, 경력인정, 소득만족), 근로여건(업무유연성, 일가정균형, 경력단절복귀, 양성평등, 업무환경의 쾌적성), 고용안정(고용유지, 평생직업), 직업가치(직업평판, 사회공헌, 소명의식), 직무특성(업무복잡성, 융합성, 전문성, 변화속도), 입직요건(학력, 전공, 자격증(면허), 외국어능력, 직업훈련, 실무경험)의 항목별 지표를 통해 파악된다<sup>9)</sup>. 직업에서 실제 역량과 관련된 실무경험 및 자격증 등의 입직요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상기한 6개 영역별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의 도입은 소득과 근로여건, 고용안정에 관한 근로복지 관련 요소와 직무특성에 기반한 입직요건 및 양성·자격 체계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자격 신설 시 민간자격에 대한 고려와 관계 설정에 관한 것으로,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을 업무독점형으로 적용할지 또는 능력인정형으로 적용할지에 대한 고려이다. 공공 아이돌보미의 경우 체계적인 인력운영과 지속적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독점형으로 국가자격의 취득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반면 민간육아도우미의 경우 엄격한 업무독점형으로 민간/비공식영역의 돌봄 서비스 운영에 대해 제재

7) • 검정형 자격시험: 60점을 합격점수로 정하고 있는 기준 지향 평가(norm-referenced assessment). 우수자를 선발하기 위한 선발적 관점에 근거함.  
• NCS 기반 자격시험(과정평가형): 성취기준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목표지향평가(criterion-based assessment) 또는 절대기준평가로 무엇을 성취하였느냐에 초점을 둠.  
8) 조정윤(2021). 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수요기반 국가자격제도 관리운영(주제발표1). 2021년 한국직업자격학회-한국산업인력공단 세미나 자료집 (2021.6.18.)  
9) 이재열·안중석(2021). 자연과학·공학·제조 분야 기초 직업지표 현황과 변화. KRIVET Issue Brief 214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와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능력인정형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의 도입은 기존 아이돌보미가 배출되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도입되는 것으로, 기존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적용과 유예기간의 운영과 신규 국가자격을 취득하는 아이돌보미의 양성과정으로 크게 나뉜다. 여기에는 유관 국가자격증 소지자에 적용되는 교육감면의 요건과 공공-민간 영역에서의 적용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행과정에서 기존 아이돌보미의 활동과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아이돌보미 수급과 연계 및 질 관리 모니터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예: 청소년지도사 무시험 검정 전환 과정에서 전문성 보장의 공백, 요양보호사 무시험에서 국가시험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양성규모가 크게 축소된 경험 등) 체계적 연계가 가능해야 하므로 신규 국가자격 도입의 이행과정은 현장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유예기간을 두고 법규명령이나 사업운영 지침(행정규칙)을 통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관자격(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초중등교사, 간호사 등) 및 민간분야 활동과의 관계와 적용에 관한 것으로,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아동 교육·보육·돌봄) 전반의 자격체계와 현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시간 면제 요건으로 반영되어있는 국가자격 4종, 활성화 되어 있는 민간분야 육아도우미의 활동과의 관계 설정과 연계가 필요하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의 도입 시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넷째, 무시험검정 여부에 관한 것으로, 국가 수준의 자격이 도입될 경우 국가자격시험의 실시 또는 무시험 검정이 적용된다. 또한 인적성 검사의 실시와 면접심사 및 신원조회와 건강검

진 등 자격발급의 요건과 절차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요구된다.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시험의 방식과 합격 기준 등 검정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국가시험의 실시 없이 강화된 양성과정을 통해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무시험검정의 경우 교육기관 및 양성교육과정(표준교과개요 등)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와 인증 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검정방법은 (대학 등) 교육과정의 학과목 이수와 실무경험/경력연한의 반영 여부, 자격시험의 응시 등이 주요 요건으로 고려된다.

한편, 무시험검정으로 시작한 ‘요양보호사’의 경우 단시간에 많은 인력을 확보하였으나, 이후 수급 관리의 어려움과 전문성에 대한 지적을 받으며 과도한 인력 배출로 인해 일자리의 포화, 이로 인한 임금하락, 일자리의 질 저하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지속되었다. 이후 국가시험의 도입으로 수급관리에 일정부분 유의한 성과가 있었으나, 시험 시행 이후 일자리의 질과 수급의 해소 및 전문성과 관련하여 여전히 많은 쟁점을 안고 있다.

### 3. 아이돌봄인력 국가자격 도입에 대한 의견

현재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와 광역센터 및 교육기관의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 방안에 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기간: 2021. 6.24~7.17). 아이돌보미 총 2,140명, 광역거점센터/서비스제공기관/교육기관의 현장실무자 총 277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sup>10)</sup>.

10)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 탑재된 웹조사 설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응답결과로, 주요 변인에 의한 비례표집을 반영한 결과가 아님에 유의가 필요함(최윤경 외, 2021).

## 가. 아이돌보미 전문성 및 서비스 질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 1) 아이돌보미 전문성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양성과정/자격체계 개선 방안

우선 아이돌보미의 전문성과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성교육과정(9개 항목)과 아이돌보미 자격취득/유지(5개 항목)에 관해 항목별 필요성을 5점척도로 질문하였다.

현행 아이돌보미 양성과정과 자격취득 및 유지에 관한 개선 방안을 질문한 결과,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동권리/아동학대예방' 관련 교과목 강화와 '인성' 관련 교과목을 필수로 지정 또는 강화, '채용 시 면접심사' 실시 강화에 대한 긍정

응답이 70% 내외로 높게 나타났으며,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의 '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한 긍정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양성/보수교육의 '질을 보강하는 것'에 대한 긍정응답은 50~60% 대로 높게 나타났다.

사업담당자의 경우 제시된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70~90%의 높은 긍정응답률을 보인 가운데, (아이돌보미와 마찬가지로) '아동권리/아동학대예방' 관련 교과목 강화와 '인성' 관련 교과목을 필수로 지정 또는 강화에 대한 긍정응답이 9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양성교육 질 보강'(91.7%) '과 '실기교육 강화'(86.6%), '인적성검사 강화'(85.6%), '보수교육의 질 보강'(87.7%)에 대한 긍정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비대면 교육

〈표 2〉 아이돌보미 전문성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양성과정/자격체계 관련 개선사항 필요도

단위: %, 점

전문성 및 질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아이돌보미(N=2,140)		사업담당자(N=277)	
	④+⑤ 필요함	5점평균	④+⑤ 필요함	5점평균
<b>양성과정</b>				
1) 인성관련 교과목 필수 또는 강화	71.8	3.8 ↑	94.9	4.5 ↑
2) 아동권리/아동학대예방 교과목 강화	74.1	3.9 ↑	93.1	4.5 ↑
3) 대면수업 과목 증대	35.6	3.2	71.7	4.0
4) 비대면 교육과목 증대	34.0	3.2	27.8	2.9 ↓
5) 실기 교과교육 강화	41.3	3.3	86.6	4.4 ↑
6) 현장실습 강화	36.5	3.2	74.7	4.0
7) 양성교육 총 시간 증대	17.9	2.8 ↓	41.9	3.4
8) 양성교육 질 보강	65.0	3.7 ↑	91.7	4.4 ↑
9) 양성교육과정내 교과목시험 도입	21.2	2.7 ↓	70.0	4.0
<b>자격 취득/유지</b>				
1) 인적성검사 실시/적용 강화	65.6	3.7 ↑	85.6	4.3 ↑
2) 채용시 면접심사 실시/적용 강화	67.4	3.8 ↑	78.7	4.1
3) 국가자격시험 도입	<b>50.0</b>	3.4	<b>71.8</b>	4.0
4) 현직 보수교육 시간 증대	16.2	2.8 ↓	42.6	3.5
5) 현직 보수교육 질 보강	57.3	3.6	87.7	4.3 ↑

자료: 최윤경·김근진·최윤경(2021)에서 실시한 아이돌보미 및 현장전문가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임(이후 조사결과표 동일)

과목 증대'와 '양성/보수 교육시간 증가'에 대해서는 긍정응답이 적었다.

이로써 아이돌보미의 전문성과 아이돌보미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아이돌보미와 사업담당자 공통적으로 '아동권리/아동학대예방' 관련 교과목 강화와 '인성' 관련 교과목 필수 지정 강화, 그리고 '양성/보수교육'에 대해서는 시간보다 내용과 질적인 보강, '인적성검사'의 실시 강화에 대한 긍정의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자격시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아이돌보미 50.0%(3.4점), 사업담당자 71.8%(4.0점)으로 긍정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사업담당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국가자격 도입에 대한 의견

### 가)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의 필요성

(보육교사 또는 요양보호사와 같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아이돌보미의 경우 필요함 62.7%, 보통 22.1%, 필요하지않음 15.3%로 긍정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3.6점/5점평균). 하위특성별로는 농어촌지역, 아이돌보미 연령이 젊을수록, 고졸이하 학력, 5년미만의 활동 경력을 가진 경우 국가자격 도입에 대한 긍정응답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사업담당자는 국가자격이 필요함 73.6%, 보통 18.8%,

필요하지않음 7.6%로 아이돌보미에 비해 긍정응답이 좀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4.0점/5점평균).

### 나) 자격취득 연령제한, 최저학력 기준, 자격갱신에 대한 의견

국가자격 취득 시 '연령제한'에 대해 아이돌보미는 평균 62.0세, 사업담당자는 자격취득 연령제한 평균 61.6세로 유사하게 응답하였다.

국가자격 취득 시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 경우 아이돌보미는 중졸 14.6%, 고졸 53.1%, 2-3년제 대졸 7.5%, 4년제 대졸 1.0%, 학력제한 필요없음 23.8%로 응답하였고, 사업담당자는 중졸 20.9%, 고졸 46.6%, 2-3년제 대졸 4.0%, 학력제한 필요없음 28.5%로 아이돌보미에 비해 학력기준에 대해 보다 유연한 경향을 보였다. 사업담당자의 경우 아이돌보미의 인성적 자질의 중요성과 국가시험 도입에 따른 전문성 확인의 제도적 장치를 보다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자격 취득 시 자격갱신 절차와 자격갱신 연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아이돌보미의 경우 국가자격 갱신 절차에 대해 필요함 34.6%, 필요하지않음 65.4%으로 응답하였으며, 갱신기간은 평균 5.2년으로 나타났다. 사업담당자는 국가자격 갱신 절차에 대해 필요함 82.3%, 필요하지않음 17.7%, 갱신기간은 평균 3.8년으로, 아이돌보미에 비해 자격갱신 절차의 필요성에 대한 찬성의견이 우세하였으며 갱신연한에 대해서도 보다 짧은 주기를 응답하였다(5년미만 61.4%). 사업담당자의 경우 국가자격 도입 시

〈표 3〉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 필요성

단위: %, 점, 명

구분	① 전혀 필요없음	② 필요없음	①+② 필요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④+⑤ 필요함	계(수)	평균
아이돌보미	3.3	12.0	15.3	22.1	43.6	19.1	62.7	100.0(2,140)	3.6
사업담당자	1.8	5.8	7.6	18.8	37.9	35.7	73.6	100.0(277)	4.0



〈표 4〉 국가자격 갱신절차 필요 여부

단위: %, 점

구분	갱신해야 함	갱신 필요없음	계(수)
아이돌보미	34.6	65.4	100.0(2140)
사업담당자	82.3	17.7	100.0(277)

〈표 5〉 국가자격 갱신절차 기간

단위: %, 점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15년이상 25년미만	계(수)	평균
아이돌보미	31.4	50.5	17.6	0.5	100.0(740)	5.2
사업담당자	61.4	32.9	5.7	-	100.0(277)	3.8

자격을 취득한 아이돌보미의 지속적인 활동과 이에 따른 질 관리와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반영한 응답으로 보인다.

## 나. 국가자격 도입 방안 및 효과

### 1) 국가자격 도입의 적절한 방안

국가자격 도입 방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아이돌보미의 경우 현행유지 44.3%, 양성과정 강화 25.9%, 국가시험 26.6%, 기타 1.3%로 나타났다. 사업담당자는 현행유지 15.5%, 양성과정 강화 21.3%, 국가시험 61.7%로 응답하여 ‘국가시험’을 통한 국가자격 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이 우세하였다.

아이돌보미의 경우, ‘양성교육’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하위특성별로 대도시 지역, 40대이하, 1~3년미만 경력, 활동시간이 많을수록 양성과정 강화에 대한 긍정응답이 좀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현행유지’의 경우, 중소도시지역, 60대이상, 중졸이하, 경력 5년이상, 활동시간 10시간미만 아이돌보미 그룹에서, ‘국가시험 도입’의 경우, 아이돌보미의 연령이 젊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5년미만 경력, 그리고 사업담당자의 경우 소속 아이돌보미 수가 많을수록 국가시험 도입에 대한 긍정의견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양성교육 시간’을 현재보다 늘려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양성교육 시간 증가 여부에 대해 ‘교과수업’과 ‘현장

〈표 6〉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제도 도입 시 적절한 방식에 대한 의견

단위: %, 점

구분	현행유지	국가시험 도입	양성과정 강화	기타	계(수)
아이돌보미	44.3	28.6	25.9	1.3	100.0(2,140)
사업담당자	15.5	61.7	21.3	1.4	100.0(277)

주. 현행유지-현재처럼 양성교육과정(이론/실습)과 신원조회/인적성검사/면접 후 국가자격 부여  
국가시험 도입 - 양성교육과정 이수 후 국가시험 합격 시 국가자격 부여  
양성과정 강화 - 양성교육 교과목 수와 시간을 현재 수준보다 보강, 이수함.

〈표 7〉 국가자격 도입 시 추가로 늘려야 할 교과수업 시간

단위: %, 점

구분		10시간	10~20	20~30	30~40	40~50	50~60	60시간	평균
		미만	시간 미만	시간 미만	시간 미만	시간 미만	시간 미만	이상	
교과수업 (이론+실기)	아이돌보미	57.1	4.2	12.2	0.6	2.9	0.9	22.0	24.3
	사업담당자	45.1	3.6	24.2	0.7	7.2	1.1	18.1	24.8
현장실습	아이돌보미	52.3	11.6	20.6	3.7	4.6	0.9	6.3	13.7
	사업담당자	45.1	14.1	21.3	2.9	4.0	0.7	11.9	17.3

실습' 시간으로 나누어 오픈응답으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교과수업'은 아이돌보미 응답 평균 약 24.3시간, 사업담당자 평균 약 24.8시간을 현행 80시간에 더해 추가로 늘려야한다고 응답하였다. '현장실습'의 경우 현행 2~20시간에 더해 추가로 아이돌보미 응답 평균 13.7시간, 사업담당자 평균 17.3시간으로 응답하였다.

이로써 국가자격 도입 시 양성과정 교과교육의 시수에 대해서는 약 20시간이상, 현장실습 시간은 약 10시간이상 확대하여 편성하여야 한

다고 아이돌보미와 사업담당자가 공통적으로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국가자격 도입 효과(도움정도)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이 항목별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13개항목에 대해 5점척도로 질문하였다.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긍정응답이 (아이돌보미 응답 기준) 약 60% 이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응

〈표 8〉 국가자격 도입 시 도움정도

단위: %, 점

항 목	아이돌보미			평균	
	①+② 도움되지않음	③ 보통	④+⑤ 도움됨	아이돌보미	사업담당자
아이돌보미 역량 및 전문성 강화	11.0	24.6	64.4	3.8	4.4 ↑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반적인 질 향상	8.1	26.3	65.6	3.8	4.4 ↑
아동학대의 예방	8.5	23.7	67.9	3.8	4.1
아이돌보미 이용 수요 증가(부모이용확대)	8.0	29.2	62.8	3.8	4.1
서비스 미스매치 해소	9.6	41.1	49.3	3.5 ↓	3.6 ↓
아이돌보미 자긍심 향상	5.5	19.3	75.3	4.0 ↑	4.5 ↑
아이돌보미 업무만족도 향상	8.3	28.3	63.4	3.8	4.0
아이돌보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5.5	22.6	71.9	4.0 ↑	4.4 ↑
아이돌보미 일자리의 질/안정성 향상	8.4	26.3	65.4	3.8	4.1
아이돌보미 급여 및 처우 개선	7.9	23.6	68.5	3.9	3.9
아이돌보미 양성규모 증가	10.1	35.4	54.5	3.6 ↓	3.6 ↓
아이돌보미 활동 이력/경력 관리 체계 향상	5.9	26.3	67.8	3.9	4.2
아이돌봄사업의 공공성 확대	5.7	27.1	67.2	3.9	4.2

답(약 10%미만)보다 우세하게 나타났다. 사업담당자의 경우 아이돌보미에 비해 국가자격제도 도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보미의 경우 '자긍심의 향상'과 아이돌보미에 대한 '사회적인식의 제고'에 대한 긍정 응답이 각 75.3%, 71.8%로 가장 높았으며, 사업담당자의 경우에도 '자긍심의 향상'과 아이돌보미에 대한 '사회적인식의 제고', 그리고 '아이돌보미 역량과 전문성 강화',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긍정응답이 많았다.

한편 아이돌보미와 사업담당자 공통으로 서비스 미스매치의 해소와 아이돌보미 양성규모 증가의 양적측면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는 긍정응답(각 49.3%, 54.5%)이 다른 긍정적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으로 급여 및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응답은 아이돌보미 68.5%, 사업담당자 68.2%로 5점척도 각 3.9점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급여 및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필요성)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3) 민간육아도우미 활동 경험 및 향후 활동 의향

본 조사에 참여한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민간육아도우미로 활동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있다 19.6%, 없다 80.4%로 나타났다. 민간육아도우미 활동 경험은 농어촌지역,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현재 월 활동

시간 40시간이상/월급여 200만원이상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향후 민간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의향에 대해서는 있음 20.9%, 보통 20.5%, 없음 58.6%로 평균 2.5점으로 응답되었다. 민간육아도우미 활동 의향은 농어촌지역, 40대이하, 학력이 낮을수록, 아이돌보미 활동경력이 적을수록, 현재 월급여 100만원미만과 200만원이상 그룹에서, 주 활동시간 10시간미만인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결어

국가자격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의 설정과 실질적인 처우개선 및 전문성 신장의 기제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전국의 아이돌보미 2,1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국가자격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이 부정적 의견보다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를 위해 국가자격 도입에 따른 양성교육과정(현장실습과 실기교육)과 절차상 인적성 검사와 면접심사의 강화 및 보수교육 체계화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NCS 기반 역량중심의 직무 평가와 관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국가자격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의의 교육·보육·돌봄(ECEC)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보면, 아동돌봄 인력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증

〈표 9〉 향후 민간육아도우미 활용 의향

구분	단위: %, 점					계(수)	평균
	전혀 없음	없음	보통	있음	매우 있음		
아이돌보미	18.6	40.0	20.5	18.6	2.3	100.0(2,140)	2.5

명서 제출에서부터(레벨 1~4), 프로그램 졸업증서(레벨 5~6), 학사학위에 준하는 교육연한(레벨 7), 그리고 학사학위 이후 과정 및 프로그램 이수(레벨 8), 석사 및 박사 학위(레벨 9, 10)로 체계화 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연한을 고려한 자격요건의 구성을 통해 아동돌봄인력의 역할과 급여 및 양성/보수 교육의 과정(교과목 내용 및 수)이 달라진다. 이는 앞서 살펴본 NCS 기반의 역량중심 자격체계의 도입과 같은 직무역량 단위에 기초한 관련 업무의 체계화 및 연계와도 연관된 것으로, 돌봄에 관한 유관분야 양성 및 자격 체계가 그 유관성과 연속성의 관점(예: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사례의 경우 영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체계화 된 아동 돌봄인력에 대한 관리운영 방안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국가수준의 자격제도를 통해 돌봄인력에 대한 양성·자

격 체계를 갖추고 있는 해외국가 사례는 찾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 관리가 국가수준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공식화 된 양성·자격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이돌보미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체계와 이에 따른 차별화된 양성/보수 교육과정의 운영, 보수체계(처우)와 일자리의 질에 관한 쟁점이 지속됨에 따라 돌봄인력의 직무와 일자리 정책으로서의 대응은 해외사례에서 드러난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광의의 돌봄 범주로 살펴볼 때 국내 유관자격 분야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요양보호사의 경우 국가자격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아이돌보미에게 국가수준의 자격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현황 및 이후 제도 도입이 갖는 의미와 실질적인 영향, 시사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